

## 디모데전서 1 장

1. 잘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긴 인사가 필요치 않다. 그런데 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왜 이렇게 인사가 길까?

이런 인사를 즐기는 것 아닐까?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살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꽃노래인 셈이다. 편지를 쓸 때마다 사용하는 의례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2.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 일부가 그랬고 (1:1-2:14),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다(고후 3:1). 바울을 시기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이 이 문제로 시비를 걸었다. 디모데에게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다. 디모데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감격스러워 하는 말일뿐이다. 목사가 미우면 목사된 사연이 얼마나 듣기 싫을까? 반대로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목사가 되어야 했던 사연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3. 바울이 인사에 많이 쓴 말은 은혜와 평강이다. 긍휼은 이 두 단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긍휼의 본래 의미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은혜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긍휼은 은혜의 출발점이고 평강은 도착점이다.

4. 동행하기를 원하는 디모데를 굳이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인가?

**사이비 율법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이단이다. 상종하지도 말했는데?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은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못하여 이단에게 교회를 통째로 넘겨준 사례도 있다. 젊은 디모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바울이 신뢰할 만큼의 실력을 갖추었다는 말이다. 교회도 이단과 싸워 이길, 교회의 진리를 파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를 길러야 한다. 맨날 '쫓아내 버리라'는 말만 하지 말고!

5. 사이비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교훈(3), 신화와 끝없는 족보, 헛된 말(6),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말(7):** 신화(허탄한 이야기) 딤후 4:4, 공교히 만든 이야기 벰후 1:16)나 끝없는 족보는 사람이 만든 얘기다. 위대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과장해서 자기들의 족보와 관련지었을 것이다. 성경도 없고, 신학교도 없던 시절이다. 누구 얘기가 옳은 얘기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던 시절이다. 바울이 3년 동안 밭났으로 가르친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한다. 자칫하면 엉뚱한 가르침에 빠질 수 있었다. 그런 위험을 디모데가 막아내야 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오늘날에도 설교 중에 상당히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윤리, 심리학, 인간계발론 같은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큰 문제다.

6. 바른 교훈과 헛된 가르침의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바른 교훈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결국, 5절의 사랑)을 이루지만 헛된 가르침은 논쟁만 일으킨다(4). 어떤 교훈이든 하나님과 형제를 더 사랑하게 하지 않는다면 바른 교훈일 수 없다. 논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분명히 헛된 가르침이다.

7. 다른 교훈은 변론만 내는 것이다(4).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중세의 종교개혁이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분열을 가져왔다. 그러면 개혁세력의 가르침이 헛된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지 살펴야 한다(11):** (바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영광스런) 복음을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교회 내부의 옳고 그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교회나 아니냐의 문제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야 한다.

8. 명색이 교사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의 뜻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까?

**혼하다:** 우스개 같지만 가르치는 내용을 잘 모를수록 말이 어려워진다고 한다. 내용을 잘 모를수록 어려운 용어를 써서 가르치라는 말도 있다. 이 경우는 자신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다.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열심히 가르치는 경우는 더 심각하다. 교회를 지킨다고 교인들을 다 떠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교회를 지키는 목사도 있으니...

9.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하면서(8) 동시에 불법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9-10)은 율법이 적극적 기능과 소극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는 구원의 조력자이면서 소극적으로는 범죄를 억제한다:** 율법이 완벽하지는 않으나 몽학선생처럼 구원으로 이끈다(인간이 죄인임을 알려준다). 잘 배우고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 전혀 불편하지도 않다. 반면에 불법한 자들에게는 범죄하지 않도록 억제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

10. 거짓교사들이 무슨 '망령된 짓이나 아비나 어미를 치거나 살인이나 음행을...' 저질렀기에 여기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걸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들과 똑같은 놈들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그럴 듯한 말로 포장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갈 1:6-9).

11. 9-10절의 악한 자들 중에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아버지를 치는 자와 어머니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 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한 마디로 어떤 자들인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말이다. 바울에게 말기신 바른 교훈(복음)을 좇지 않는 거짓 교사들은 십계명을 거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선언이다(갈 1:8, 9).

거룩하지 아니한 자(4계명)와 망령된 자(3계명), 아버지를 치는 자와 어머니를 치는 자(5계명), 살인하는 자(6계명),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7계명), 사람을 탈취하는 자(10계명), 거짓말 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9계명)의 순서를 따르고 있으므로 처음의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는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1, 2계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결국 마지막의 표현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만 남는다. 바울에게 말기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거짓 교사들은 십계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셈이다.

12.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바울에게서 찾는다면 그는 이방선교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두 문화(헬라, 유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직분을 맡았다고 말한다(12-14). 자신의 장점을 자랑거리로 삼기보다는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거리낌없이 드러낸다. 사도가 된 이후의 업적을 생각해 보아도 자랑거리가 참 많을 텐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도,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것도 오직 그 분이시다.

13. 죄인 중의 괴수에게 가장 반가운 말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15, 마 9:13, 롬 5:8)**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며 그만큼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일이다.

14. 괴수란 두목이라는 말인데 바울에게는 죄인 즐거들이 많이 있다는 말인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죄가 많다는 뜻이다:** 물론 자신들과 동역하던 다른 제자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15. 시범 케이스라는 말이 있다.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별로 잘못된 것이 없어도 크게 혼이 날 수 있다. 바울은 시범 케이스로 예수님께 걸렸다고 말한다(16절의 ‘본’). 무슨 일에 시범 케이스로 걸렸으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13, 15)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12, 14)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는가(16)! 본보기(시범 케이스)도 본보기 나름이지 이런 본보기라면! 결국은 온통 감사, 감격뿐이다(14, 15, 17). 그런 감격을 하나님께 돌린다(17).

16.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란 아마도 디모데를 감독으로 세울 때(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임직하면서) 당부한 말씀일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은 힘의 원천이고 착한 양심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가야 하는데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회심하기 전의 바울처럼 좋은 믿음이 방향을 잘못 잡아 오히려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17. 선한 싸움을 위한 무기는 무엇인가? 자살폭탄? 오기?

**믿음과 착한 양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싸움도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주로 사용되는 무기가 돈, 힘, 오기, 법 아닌가? 일부 무슬림들은 자살폭탄으로 성전을 치른다. 선한 싸움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18.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두 사람을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회중의 결의를 통해서 징계를 했다는 뜻인데 역본에 따라 뜻이 조금씩 다르다. 참고로 영어 *teach*는 ‘가르치다’는 뜻 외에 무슨 뜻이 있을까?

‘훈내주다’란 뜻이 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휘방하지 못하게 징계를 받도록 사단에게 내어주었노라’ 말은 ‘하나님을 휘방하지 못하게 배우도록 사단에게 내어주었노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후에네오에 관한 딤후 2:17-18의 설명을 참고하면 단순히 혼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출교시켜 버릴 수도 있겠다.

19. 디모데전후서와 디도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린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 장의 내용을 다음 세 가지 주제로 정돈해 보자. 즉, 목회자로서 사역의 바탕, 사역의 동기, 사역의 도구는 각각 무엇인가?

사역의 바탕은 바른 교훈(3-11), 사역의 동기는 은혜의 체험(12-17), 사역의 도구는 믿음과 착한 양심(18-20)이다.

## 디모데전서 2 장

1. '첫째로' 했으니(1) 둘째로 '는 어디에 있는가?

**없다:**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목회 사역에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사역자의 우선적인 사역(준비가 아닌)은 기도이다.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지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2.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는(1) 각기 다른 네 종류의 기도일까? 아니면 기도의 내용에 따른 순서일까?

**내용에 따른 순서로 보는 것이 좋겠다:** 열심히 기도하되 이런 내용을 다 포함시키라고 하는 셈이다. 간구는 간절한 필요를 아뢰는 것이고, 기도는 일반적인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며 도고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이다(흔히 중보기도라고 한다). 감사드리는데도 빠뜨리거나 잊지 말아야 한다.

3.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도자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도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잘 해서 나라가 평온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경건하고 단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지도자가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일반 백성들도 복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4.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면(4)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두셨다는 뜻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민족이라고 (가령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은 안 된다는 생각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두셨으니까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다.

5. 느닷없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는 말이 왜 튀어나왔을까?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이다. 대상을 잘못 선택하거나 중보자가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6.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는 표현은 미래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래형 시제가 아니다 (개정개역에서는 수정되었음) 부정사처럼 정해진 시제가 없이 본동사의 시제를 따른다면 과거형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까?

**기약이 이르면 증거된 것이라:** 예수께서 자신을 속전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이다.

7. 바울이 사도로 세움을 입었고,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거짓교사들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님 생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걸고 넘어졌을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세하게 해명을 했지만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에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라고 권하는 문맥이기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갈 뿐이다.

8. 남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중보자를 세웠고(4,5)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7)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쓸데없이 다투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8). 기도하라고 주신 손으로 싸우지들 말고!

9. 남자들만 기도하고 여자들은 안 해도 되나?

**동일하게 해야 한다:** 9절의 '이와 같이 여자들도'란 말은 원리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뜻이다.

10.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하라는 말인가?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마 5:23-24)

11. 남자나 여자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남자는 분노와 다툼이 없도록 자신을 치장해야 하고 여자는 염치와 정절과 선행으로 치장하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치장이 다를까?

남자와 여자 다른 탓이다. 남자들은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기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런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다를 뿐이다.

12.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창조 섭리에서:** 즉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것을 오해하여 여자를 무시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나 구별되게 만드셨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어울려 산다는 것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놀이 같다.

힘은 있지만 좀 어설픈 남자를 앞에 두고, 흔들리기 쉽지만 그래도 꽤 많은 여자를 뒤에 배치한 셈이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된다. 역으로 배치해 두면 핸들이나 브레이크 성능이 좋지 않은 자동차처럼 위험할지도 모른다. (1박2일 캐릭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러면서 머리 좋은 사람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재미없을 걸) 남녀가 똑 같았더라면 얼마나 인생이 단조로울까? 가뜩이나 재미없는 세상에서!

13. 여자들은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걸까? 성경에는 여자들이 지도자 노릇을 한 적이 없는가?

구약에는 선지자로 불리운 미리암, 사사로 드보라가 있다(숫자상으로 적기는 적다) 신약에서는 브리스길라, 루디아, 뵈뵈, 빌립의 네 딸, 유오디아와 순두게 등이 있다. 심지어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를 가르치기까지 했다. 교회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하는 말이지 가정에서 가르치는 일은 어머니의 몫이었다. 디모데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는가!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

14.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기능적 차이를 인정하고 남자를 대표주자로 세워서 순종적인 자세와 조용함과 정절로 자신을 치장한다면 무슨 복이 있을까?

**구원을 받는다:** '그 해산이란 순종함과 조용함 곧 정절을 의미한다. 그것이 곧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며 곧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비록 해산의 고통이라는 벌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같은 원리가 남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해산의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범죄하고 떠나버린 인생을 다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산의 고통은 저주일 뿐이다.

15. 양식선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

**남자는 철없는 아이, 여자는 이해할 수 없는 요물:** '남편이 언제 철들꼬?' 하다가 철들기를 포기했다. 철들면 죽는다니까 철들지 말고 그냥 오래 살란다. 남편과 아이 둘을 가리켜 아이 셋이라고 하더라. 반면에 여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상한 존재다.

**전쟁의 원리와 평화의 원리:** 전쟁처럼 힘이 필요한 시절에는 남자가, 평화로운 시절에는 여자가 힘이 세어진다. 조선 시대에도 임진왜란 이전에는 남자들이 처가살이를 했고 부인이 남편을 자네라고 불렀다. 전쟁이 지나가면 남자들이 득세를 하고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 여자들이 득세를 한다. 싸우지 않고 서로 이기려면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 정석이다.

남자의 외모는 어른처럼 변하지만 생각은 어린이 상태로 있는 반면에 여자의 외모는 어릴 때 모습을 많이 간직하는 반면에 생각은 어른의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몸을 탐내고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탐낸다.

함께 모르는 길을 가다가도 길을 묻는 것은 여자다. 남자는 웬만하면 길을 물으려고 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영원한 수수께끼:** 남편이 이해가 되나? 아내는 이해되나? 보통 20, 30년은 걸린다. 큰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 좋다. 아마도 문제가 될 생길 것이다. 힘은 세지만 영리하지 못한 젊은이와 머리는 좋으나 힘이 없는 노인이 어울려 살려면? 소경과 앞은뱅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복잡한 남녀의 관계는 마치 자동차 설비가 된 고성능 설비와 같아서 다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너무 어렵다. 문제가 생기면 끄고 다시 켜면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간단한 스위치를 하나씩 주었다. 남자에게는 '사랑하라' 여자에게는 '순종하라'는 스위치다.

### 디모데전서 3 장

1. 감독이란 '양떼를 돌보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다. 오늘날 목사나 장로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지만 기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사나 장로가 되는 것이 그렇게 선한 일인가(1)? 요즈음은 경쟁이 심하다고 하던데?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이 된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개인적인 욕심에서 직분을 탐하는 감독도 적지 않아 보인다. 교회가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다.

2.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독신은 안 된다는 말인가? 사별하면 재혼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일부일처제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독신이나 재혼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부터 감독의 자격이 없다.

3. 감독의 자격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자녀다.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영락없이 '수신제가'다.

4. 감독은 아담해야 한다? 너무 키가 커도 안 되겠네?

예의 바르다는 뜻이다. 외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점잖은 행동을 가리킨다.

5. 감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르치기를 잘 하는 것 아닐까? 중요도로 보아서는 좀 앞쪽에 놓여야 할 텐데...

가르치는 일보다 인품이 먼저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품에서 존경받지 못하면 잘 가르칠 수 없다. 듣는 것보다는 보고 배운다는 것이 감독에게도 통하는 것은 교회가 가정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6. 핍박받던 시절에 '외인들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7)은 좀 무리가 아닐까?

도덕적으로는 외인들에게도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도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절실한 문제 중의 하나다.

7. 집사의 자격이 감독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 셈이다:** 초대교회의 집사란 오늘 한국교회의 집사보다는 훨씬 더 무게가 있었다. 합부로 직분을 주지도 않았다(10).

8.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8-13) 도중에 왜 여자들 얘기를 끼워 놓았을까(11)?

**아마 여집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리라:** 일반적인 여자 얘기를 여기에 끼워 놓았을 리는 없고, 집사의 아내에 대한 말일 수도 있지만 감독의 아내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여집사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9.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름다운 지위와 큰 믿음:** 승진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제대로 된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에서 진보가 있게 마련이다.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크나큰 유익이다. 이와 달리,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타락이다.

10.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계획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있나(14-15)?

성령 충만이 사람을 초능력자로 만들거나 만사형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의 뜻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11. 하나님의 집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킨다. 성도가 교회요, 성도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다. 이 교회야말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12. 16절과 4:1을 참고하면 교회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16절이 경건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란 사실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13. 경건이란 '복음의 개요'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믿는 바는 정말 위대한 것이라는 감탄이다. 도대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임금이 시골의 우리 집에 나타나신 것보다 더 기절할 일이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고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부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승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교회를 통한 전파)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왕으로 통치하심)

### 디모데전서 4 장

1. 앞장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언급했다(3:16). 교회가 이런 감격 속에 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어떤 자들이 설치고 나설까?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 이런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 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양심이 불에 타서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화인, 즉 불도장을 찍은 신체부위는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어진다. 그리스도는 죽은 영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귀신들은 겨우 살려놓은 영을 미혹해서 죽게 만든다.

2. 사도 바울이 3년에 걸쳐 말씀을 잘 가르쳐 놓았는데도 배교하는 무리들이 나올까?

**아무리 잘 해도 이상한 무리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진히 인도하실 때에도 많은 무리가 반항하고 원망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지도자들이 이런 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과 악한 영이 노리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앞으로 어떤 이단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는가?

**금욕주의(3):**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육체적 쾌락을 죄로 여겼다. 그러나 혼인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만든 제도며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 홍수 후에는 육식도 허락하셨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4. 미혹케 하는 자들이 폐하라고 하는 혼인과 식물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말씀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기도하면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부부 사이의 육체적 쾌락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5.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누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6)?

**디모데가 선한 일꾼이 되고 양육을 받게 된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은혜를 받고 가르치는 자가 더 잘 깨닫게 되어 제대로 된 일꾼이 된다. 배우는 자도 그리 되겠지만 더 은혜를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다. 우리말 번역은 주어가 좀 애매하므로 다른 번역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배운 것이 적다해도 그만큼 만이라도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6. 경건에 이르는 것도 연습을 해야 하나?

**육체의 연습처럼 해야 한다:** 믿은 지 십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대로라면?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변해야 할 것도 있다. 튼튼하게(=연습해서, 7) 성장해야지(=양육을 받아, 6) 진보가 있어야지(15)! 잠깐 있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금생과 내생을 살아가야 하는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운동을 해야겠는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금생의 약속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보너스다!

7. 바울이나 디모데가 힘들고 어려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10):**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목사나 장로로 산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오늘 한국교회는 영평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엄청난 욕을 듣기도 한다.

8.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디모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11절:** 디모데가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일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쳐야 하니깐.

9. 그냥 '가르치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명하고 가르치라'고 할까(11)?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다:** 감독이기에 성도들을 명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이 전해야 하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잊지 말라는 의미다. 나이는 어릴지라도 전하는 말씀은 결코 무시당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0. 젊은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까?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12):**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요소다. 이런 것들이 말과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 겉으로 나타난 말과 행실이 속과 달라서도 안 된다.

11. '조심없이 말며'라는 말(14)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디모데의 은사가 무엇일까?

감독이라는 직분과 디모데가 가진 특별한 은사(가령, 가르치는 은사, 거짓없는 믿음, 딤후 5:15) 둘 다를 가리키는 것 아닐까?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은 것은 아무래도 직분을 맡은 것일 테니.

12. 감독은 명령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가?

**본을 보여야 하고(12), 해야 할 일에 착념(전념)해야 하고(13), 조심해야 하고(14, 16) 전심전력 해야 한다(15):** 감독을 할 생각이라면 이럴 각오를 해야 한다.

### 디모데전서 5 장

1. 나이 많은 성도가 잘못 하고 있으면 젊은 감독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하듯이:** 실제로는 직분이 더 중요하지만 나이를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로 온유하게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한다. 신앙인이 예의범절을 무시할 수는 없다
2. 젊은 여자를 대할 때에는 왜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할까? 다른 분들은 그리 하지 않아도 되는가?  
**성적으로 깨끗하라는 말이다:** 남자들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유혹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유혹이다.
3. 참 과부라니(3, 5, 16)? 그러면 돌 과부도 있는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효를 다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다. 이런 과부는 과부지만 꼭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니 참 과부가 아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과부가 참 과부다.
4.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만 해야 하나?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하면 안 될까?  
 당시에 재미있을만한 일이 그렇게 없었을 걸! 생계를 위해서 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으니 달리 할 일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다른 일 하는 사람을 ‘일락을 좋아하는 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이 그런 까닭이다. 일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방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5. 믿는다고 하면서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란다. 그러면 천국에 못 가나? 믿는데?  
 과부같은 어려운 가족을 돌보라는 뜻이다. 이런 문구를 가지고 천국에는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야단치려고 하는 말은 토론이나 공부하는 말과 강조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
6.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려면 60세는 넘어야 한다.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하라고?  
 과부의 명부에 올라간다는 것이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줄 뿐 아니라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 직무를 맡았을 것으로 본다. 가령, 오늘날의 여전도사와 같은 일을 한 것 아닐까? 따라서 젊은 과부라고 전혀 구제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10절의 선한 행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0절도 구제의 대상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7.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야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다면 결혼한 적이 없거나 재혼을 했다가 과부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표현이 ‘아내로서의 정절을 지킨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처녀로 지낸 사람이나 재혼을 했더라도 결혼 생활을 온전하게 했던 사람은 해당된다.
8. 젊은 과부가 사집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인가(11)? 시집을 가라고 하면서(14) 시집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특별한 직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시집을 가는 것은 이 직무를 포기하는 것(=배반)이 된다는 뜻이다. 애초에 이런 서약(=처음 믿음)을 했다가 취소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60세 이상된 분을 명부에 올리라는 것이다.
9. 시집가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욕(11, 14, 6):** 대적에게 휘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다.
10.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집집에 돌아다니며 일을 만들까(13)?  
 심방을 하거나 가르치느라고 집집을 돌아다니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지만 돌아다니며 망령된 짓을 하거나 구설수에 오를만한 일을 만드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게으름이다. 오락이나 노름을 밥새도록 하는 것도 열심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다.
11.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면 못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못해도 존경하라는 말이다:** 못하는 데 어떻게 존경해? 부모를 존경하듯이 하라는 것이다. 부모가 잘못한다고 함부로 내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점을 감안하면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겠는가! 장로를 선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잘 뽑아야 한다! 뽑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치면 더욱 그래야 한다.
12. 초대 교회 시절에 이미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던 모양이다. 장로가 무슨 종류가 있나?  
**다스리는(치리)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목사):** 목사도 장로의 일종이다. 서로 협력하며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하는데 협력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힘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문제다.
13. 목사님들 중에는 교회에서 사례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있다. 디모데도 그러했던



모양이다. 바울의 충고(18)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인가? 자기도 받지 않고 자비량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목사의 생활비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

교회는 목사의 수고에 감사하고 목사는 교회의 사례에 감사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목사들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큰 문제다. '너희들에게 얻어먹고 살지는 않는다'는 태도로 사례를 받지 않고 큰소리 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성도를 섬기라는 것이 사례의 의미다.

14. 장로라고 증인이 더 필요한가?

**장로에 대한 비난에는 더 신중하라는 말일뿐:** 애당초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효력이 있다(신 19:15, 민 35:30). 장로라고 특별히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15. 죄를 범했어도 비공개로 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의 가르침(20)을 무시하는 건가?

문맥상으로 여기서 범죄한 자들이란 장로를 가리킨다. 장로의 범죄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일반 성도들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말아야 교회에 덕이 되거나 또 다른 성도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기에 일괄적으로 다룰 수 없다.

16. 감독으로 어떻게 교회를 잘 돌보아야 하는지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21-22).

**공정하고, 신중하게:** 편견과 편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해야(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얹어는 '동반자가 되다') 말라는 것과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상호관련된 것으로 신중하라는 말로 요약이 가능하다.

17. 교회를 잘 돌보라고 당부하면서 그래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충분할 텐데 굳이 '천사들'까지 거론할까?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친히 담당하는 실무진이므로:** 특히 그냥 천사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천사'라는 것은 자기 처소를 떠난, 즉 타락한 천사들과 대조를 이룬다. 이 천사들이 성도를 돌볼 뿐 아니라 훗날 심판하는 일까지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18.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포도주를 '조금씩이라도 쓰라'고 권하는 것은 디모데가 포도주조차 입에 대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일상적인 음료로 쓰이는 것이었지만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은 전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아마도 디모데는 그런 정신으로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법이나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일이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결심을 하고 혼자서 금욕적인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드물지 않다.

19. 건강에 대해서 충고를 하더니(23) 느닷없이 죄와 선행도 결국은 숨길 수 없는 것이란 말(24-25)을 하는 것은 우왕좌왕하는 것 아닌가?

23절이 삽입된 것이다. 장로를 세우는 일이나 공평하게 교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 드는 일인지 알기에 이런 당부를 하다가 디모데의 몸이 약한 것이 생각나서 한 마디 하고 다시 돌아와 '일을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살펴보면 선악이 다 드러나는 법'이라고 가르치는 셈이다.

## 디모데전서 6 장

1. 종을 해방시킬 생각을 않고 오히려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하다니?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휘방을 받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종의 인권에 별 관심이 없었나보다?

**제도의 변화가 목표가 아니라 인격의 변화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 결과적으로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종을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정치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사람의 가치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 종의 인권을 확립하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다. 노예를 해방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어려웠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예해방은 더 멀어졌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우선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휘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2. 졸병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 고참들이 따라할까? 종이 열심히 일한다면 주인이 수고했다고 상을 줄까? 종과 상전은 같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 사회에 충격적인 말이 본문에 있다면 무엇일까?

**상전을 형제라:** 우리나라에서도 양반은 상놈을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차에 교회에서 상놈을 보고 '000 선생님'이라고 양반과 겸상하여 앉게 되자 감격의 눈물을 뿌렸단다. 그래서 자신을 형제로 인정하는 그 양반들(2절의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에게 더 잘하게 되는 것(2절의 '유익을 받는 자들'=종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다.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경건에 관한 교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적용 부분 아닐까?(=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친 사도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가르침이 바른 말이다.

4.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 수 있을까?

말로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생명을 살리는 일이나 사랑을 나누는 노력이 아니라면 이겨도 쓸데없는 자존심만 세웠을 뿐 남는 것이 없다. 결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셈이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당시에 유명했던 소피스트(궤변론자)처럼 말로 싸워 이기는 기술에만 집착하는 것은 결국 다름만 일으킬 뿐이다.

5.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다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목사를 돈벌이의 발판으로 삼는 자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6. 지족(=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면(6)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경건은 어떻게 될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라고 묻는 것과 같은데?

작은 이익이 되겠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련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물질적인 용요가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케 한다. 그렇다고 물질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야 한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잘 쓰면 유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7. 단순한 삶을 살던 시절에야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집, 차, 아이폰...

무소유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정립하라는 것이다. 족한 줄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다. 건강한 부자가 더 낫다(176-18)

8. 부하려 하지도 말고(9) 돈을 사랑하지도 말라는(10) 말인가?

돈 버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들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말이다. 돈에 최우선권을 두면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일(고기를 갈고리에 꿰는 일)이 벌어진다.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116) 차선의 노력으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부하려고 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건강한 부자가 필요하다. 바울은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천막을 만들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려고 엄청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이런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9. 부하려 하지 말고(9-10)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11-12)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도 뒷전으로 미루어 두고 부하려고 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부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선한 싸움이 된다.

10.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민 16:22)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걸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는데 왜 빌라도가 끼어드는가 말이다. 간단하게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그러면 되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 아'라고 부른다(11).

11.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시는가? (본문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특히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때가 되면 나타나실 분(15, 14):** 아무리 위대하셔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야 걱정할 일이 없지만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니 그 때까지 명령도 지켜야 하고 존귀와 영광도 드러야 한다.

12. 부자들에게 무엇을 명하라고 하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하나님처럼 후히 주라(176-1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 것처럼 마음을 낮추고 재물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나누어 주라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좋은 터를 쌓는 일이며 나아가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13.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는 무리는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주장이나 가르침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가?

**망령되고 허탄한 것(말과 변론):**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귀가 솔깃할 정도로 잘 가르친단다. 교회에서 답을 잘 듣지 못하는 난제를 때로는 너무 쉽게 설명하기도 하기도 한단다. 사이비가 자신들만이 가진 지식이라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거짓을 가르치기 위한 미끼일 뿐이고, 아무리 진지하게 떠들어도 허탄하고 망령된 것일 뿐이다.

## 디모데후서 1 장

1.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두 가지 이유를 말해야 한다. 실상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나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바울은 이 약속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2.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떤 관계일까?

**긍휼의 결과가 은혜이고 은혜의 결과는 평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보셔서(=긍휼) 주신 선물(=은혜)이 은혜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3. 간구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한다(3)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기도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다. 이 표현도 그 중의 하나다. 생각없이 하는 기도가 가능할까? 뜻도 모르는 말로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4.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눈물, 믿음(4-5, 빌 2:19-22), 그로 인한 감사:** 바울의 대리인 자격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그에게 왜 눈물이 없었을까? 신뢰할만한 믿음을 가졌기에 젊은 디모데에게 그럼 막중한 사명을 주었을 것이다.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바울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러니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로서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3-4)?

5.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면(5)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나?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다면 믿음도 유전인가?

**위선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 말이다. 디모데는 외식이나 형식에 매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다. 이런 믿음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유전)이 아니라 외조모와 어머니의 엄청난 노력, 즉 신앙교육에 의한 것이다.

6. 디모데는 장로의 회에서 이미 안수를 받았다(딤후 4:14). 또 다시 안수하겠다는 말인가(6)?

**그 때 받았던 은혜(=안수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 때 받았던 감격뿐만 아니라 배웠던 교훈과 각오를 잊지 말라는 당부다.

7. 바울이 병약(딤후 5:23)할 뿐 아니라 젊은(딤후 1:3-7) 디모데에게 바라는 것(6)이 꼭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뺏으로 두었다면 무엇이 두려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며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왜 절제하지 못할까?

8. 디모데에게 안수 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은사 외에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복음을 위하여 당한 자신의 모범:** 한 마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온 '나를 보라'는 것이다. 훌륭한 스승이다.

9. 부끄러워 말고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을 없애주는 것 아닌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롬 8:17).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다. 지혜롭지 못하거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것은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10.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다(1:8). 도대체 무슨 핏박이 닥쳐오기에 이런 명령을 하는지 찾아보자.

특별한 고난이나 구체적인 핏박의 내용이 디모데후서에는 없다. 대신에 거짓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3장), 말씀을 잘 가르칠 것에 대한 명령이 많다(1:11, 14, 2:2, 16, 22, 24, 4:2, 5). 그러므로 디모데가 받아야 할 고난이란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한 고난이다.

11.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은혜일뿐(9):** 우리의 행위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알 수 없는 은혜다. 그저 주신 것이요(엡 2:8-9), 영원 전, 즉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다(딤후 1:2). 이런 복을 받았으니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충성하라는 것이다.

12.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은 영원 전에 작정된 것이다(9). 작정되었다는 것은 비유권대 설계도인 셈

이다.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는 계기는 무엇인가?

**예수의 나타나심(10):**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듯이, 씨앗에 싹이 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나?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13.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8-12)?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12). 그 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줄을 확신한다. 그 분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임을 알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14.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부탁한 것을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부탁한다. 이럴 때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지키라'고 당부하는 법이다. 바울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13), 성령으로(14):** 결국은 같은 말 아닐까? 예수님께서 말기신 바른 말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15.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설마? '모든'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어떤 감정이 묻어나는가?

**섭섭함:**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밭낫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앞장서서 배신한 것에 대해서 몹시 서운했던 모양이다. 바울도 이런 섭섭함을 느낄 나이가(?) 된 것 아닐까? 바울은 67년에 네로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편지는 그 직전에 쓰인 것이다.

16. 배신자들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배경처럼 작용해서 끝까지 함께 한 오네시보로의 가족을 더 빛나게 하는 셈이다. 이 내용을 편지 말미에 쓰지 않고 초두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셈이다:** 편지 말미에 썼다면 감사의 표현이 더 강하겠지만 여기서는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더 강조되는 것이라고 본다.

## 디모데후서 2 장

1. 디모데가 특별히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갇힌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실망했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많은 배신자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염려하지 말고 들을 바를 열심히 전하라는 것이다. 강하라고 한다고 강해지는가?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것이다. 종이 찢어지지 않으려면 딱딱한 판자나 벽에 붙어 있으면 된다.

2. 아무도 깨닫지 못한 비밀스러운 계시를 가르쳐 준다고 유혹하는 무리가 적지 않다. 복음은 그렇게 비밀스럽게 전해지지 않았다. 혼자서 성경을 읽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선조들의 성경해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신조요, 헌법이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디모데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많은 증인들:** 디모데에게 전해진 복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해진 것이며 함께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증인의 역할을 해주었다.

3. 할 일이 참으로 많을 텐데 하필이면 고난을 받으라고 할까?

**고난을 각오하라는 말이다:** 목표가 고난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 일을 하라는 것이다. 고난을 받으라고 권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다.

4. 전도자는 어떤 점에서 병사, 선수, 농부와 같은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법대로 하면 반드시 적절한 열매를 거둔다:** 전도자로 살려고 작정하면 개인적인 욕심을 버려야 마땅하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목사의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다.

5.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은 목사로서 사례를 받으라는 권면일까?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무리다. 선수의 면류관이나 병사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사례문제가 아니라 일에 대한 본질적인 열매(복음 전파에 따른 기쁨)를 가리키는 말이다.

6. 어떻게 해야 총명해지는가?

**말씀을 생각하는 자에게 총명을 주신다(7):** 총명을 아무에게나 그저 주시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해야 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찾는 자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를 잘 생각하고 유념하면 법사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란 말이다.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다.

7. 기억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다윗의 씨)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8.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 자신은 죄인처럼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갇혀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9.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다니(10)?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온갖 노력을 다 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바울이 애쓰지 않아도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 아닌가?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인간을 필요로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능력의 문제가 아니라)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의도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온전하게 조화를 이룬다.

10. 언제 죽었다가 언제 산다는 말인가(11)?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인다:** 그 외에 순교나 일상생활에서의 자기부정(옛 사람에 대한 죽은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산다는 것도 장래의 부활을 포함하여 현재에서 승리하는 삶을 포함한다.

11. 죽으면 살 것이라고 하면서 죽음보다는 훨씬 쉬운 '참으면' 왕 노릇한다고? 참는 것이 상이 더 크다는 말인가?

죽는 것이나 참는 것은 내용상 동일하다. 동시에 주와 함께 사는 것과 왕 노릇 하는 것도 같은 의미다.

12.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것(13)은 회칙(11-12)의 부칙과 같은 성격이다. 왜 이 표현이 추가 되었을까?

**위의 3가지 표현이 확실하다는 보증의 의미를 가진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므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 고마운 것은 주님께서 자

기를 부인할 수 없으니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사는 것, 왕 노릇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13. 그들(성도들)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명하란다. 일반적인 말다툼을 가리키지는 않을 것이다. 특별히 경계해야 할 말다툼(=변론)이 있었을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관한 변론(딤펴전 1:4, 4:7) = 망령되고 헛된 말(16):** 이단의 가르침과 주장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악성 종양과 같은 것이어서(17) 듣는 자로 하여금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가게 하고(16)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14)이기 때문이다.

14. 온갖 이단들이 횡행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꾼의 능력은 무엇인가?

말씀을 잘 분별하는 능력(15)! 성경만 가르쳐서 머리만 굽어진 교인들이 많으면 뭐 하느냐고 하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 중에는 진짜 말씀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적지 않다. 얼마든지 성경을 구할 수 있고, 연구할 자료가 넘쳐난 시대일수록 말씀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죽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5.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주장이 어떻게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주장은 교묘하게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고전 15:12):** 영지주의자들은 영의 부활은 인정하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것이다.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하는 헬라철학의 이론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16. 설령, 이단들이 득세하고 이런 저런 핍박과 비난이 있다고 한들 교회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주께서 인 치셨기 때문(19):**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데 누구 어떻게 하겠는가?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할 일(불의에서 떠나는 것)이나 하라는 것이다.

17.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자주 쓰이는 것과 특별하게(드물게) 쓰이는 것:** 재질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한 답이 되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잘 쓰이는가에 두는 것이 좋겠다. 금 그릇은 합부로 쓰이지 않지만 대신 자주 쓰이는 않는다. 천하다는 것은 편하게(마구)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무 때나 수시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릇이 오히려 더 역할을 잘하는 것 아닐까? 중요한 것은 깨끗하냐, 아니냐라는 것이다(21).

18. 젊은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청년의 정욕(무엇이든 지나친 욕망을 지칭),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다툼:** 젊은 목회자에게는 다 어려운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혈기, 명예욕, 식욕, 성욕, 지식욕 등일 것이다. *workaholic*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건강을 돌보느라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도 그리 지혜롭지 못하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욕심 아닐까? 그러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목사님께서 후배들에게 남긴 말이 '책 사지 말고 밥 사먹으라'고 하셨단다.

19.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8가지).

**깨끗한 마음, 의, 믿음, 사랑, 화평, 온유, 잘 가르침, 온유한 훈계:** 그것도 혼자만 잘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함께 해야 할 일이다(22).

20.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뭘까?

**이단들의 주장을 말한다(14, 16, 딤펴전 1:4, 4:7, 딤펴 3:9):** 온유한 훈계만이 유익할 뿐이다. 이단들의 이런 논리야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저런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보인다면 당연히 피해야 한다.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나 어떻게 결론이 나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너무 열을 내지 않아야 한다.

### 디모데후서 3 장

1.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말세가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을 가리키는 걸까, 아니면 그 당시를 가리키는 걸까? 2-5절의 부정적인 내용이 그 당시의 모습일까, 말세라고 하는 오늘의 모습일까?

바울 당시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말세란 그 때이기도 하고 지금이기도 한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성육신으로 말세가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그러므로 말세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에 말세의 고통이 닥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자중하라는 의도다.

2. 사귀지 말아야 할 인간의 종류가 너무 많다(2-5). 다 외우기도 어렵겠다. 이 모든 종류를 다 포함하는 대표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아마 여기에서 언급된 거의 모든 악행이 자신의 유익만을 최고로 여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리라. 이런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롭게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3.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만 악의 뿌리라면(딤후 6:10) 돈을 미워해야 하나?

**돈의 종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때문에 더 중요한 모든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더 나은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사용할 줄 알면 된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 돈의 위력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등)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4.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일(5)이 어떻게 가능하지? 능력을 부인한다면 경건한 모양을 하거나 말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예를 찾는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 그냥 좋은 곳이니,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상사가 다니고 있으니, 장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에 이름이라도 올리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에서... 당시에는 아마도 유대주의자나 이단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이다.

5.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서 뭘 하는 걸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거짓 교훈을 열심히 가르친다(?)** 학문이나 예술을 중요하게 여긴 헬라의 풍토에 따라 귀부인들은 스승을 불러서 이것저것 열심히 배우곤 했다. 그러한 중에 이단사설을 늘어놓는 자들이 새로운 사상을 가르친다는 구실로 접근했을 것이다.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6. 모세를 대적한 얌네와 암브레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다른 문헌에 애굽의 술객으로 나온단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 모세를 대적했다는 말인가?

**모세가 바로 왕과 대적할 때(출 7:11, 22, 8:7, 18):**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당시의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아예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7. 이단들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말은 누구와 같아지는가?

**얌네와 암브레:** 애굽의 술객들이 나름대로 왕과 백성을 속이면서 한 때 잘 나갔지만 모세의 등장으로 속임수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처럼 이단의 결말도 그럴 것이다.

8. 이단자들과 복음 전파자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가?

이단의 어리석음은 드러나고 복음은 박해 가운데서도 반드시 권임을 받는다.

9. 디모데가 언제 바울을 만나 제자가 되었는지 알 수 근거가 본문에 있을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가 기억하고 있는 바울의 박해와 고난이 (비시디아)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고,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이다(행 13, 14장).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고치자 신이 강림했다고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 치기도 했던 곳이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를 선교여행에 동참시킨 것은 2차 여행 때이다(행 14:1-3).

10.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 반면에 남을 속이며 사는 사람은 어떨까?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속임을 당하는 수가 있을까?

**반드시 속는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기에 결국은 자신이 속는 결과를 가져온다. 모래 위인지 바위 위인지 살피지 않고 집을 세우기에만 급급한 꼴이다. 허물어질 때는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허물어진다. 수십 번 남을 속여서 취한 이득이 한 번의 속임에 다 사라져 버린다.

11. 누구에게 뭘 배웠느냐는 것이 왜 중요한가?

스스로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곳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에서 태어나면 자신도 모르게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 문화에 젖어서 다른 나라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스승에게 잘못된 것을 배우면 진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인다.

12.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뭘 배웠는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1:5) 그리고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웠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성경의 내용(기록된 말씀)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선포된 말씀)은 바울에게서 배운 셈이다. 성경 자체(음식의 재료라면)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체계(요리법에 해당하는 셈)를 잘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하다. 사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진리를 배웠으니 참으로 복되다! 최고의 도박꾼에게 돈 따는 비결을 배운 것과 비교해 보라. 돈 따는 비결이 낫다고?

13.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운 것이 왜 복일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이것이 가장 귀한 것)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14. 성경이면 성경이지 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걸까?

문자적으로는 '모든 책'이란 뜻인데 실제로는 구약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한 권으로 재본된 상태가 아니라 각권이 따로 두루마리 형태로 존재하던 시절을 반영하는 표현이다.

15. 성경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지닌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자의 개인적 특성까지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책이다. 자증(自證)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누구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들여다 보면 하나님을 저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책이다. 가령,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는다, 자기 역사라고 과장하지 않는다, 당대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

## 디모데후서 4 장

1.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는가?

**살려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죽으면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는다. 사법권이 미치는 것은 산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간혹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일(부관참시)이 과거에 있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심판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죽은 자도 부활시킨다. 영벌에 처하기 위한 심판이 있다. 이게 진짜 죽음이다.

2. 1-5절의 명령은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말일까?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5절의 '전도인'이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독특한 직분의 하나다(엡 4:11의 '복음 전하는 자', 행 21:8의 '전도자': 빌립을 위시해서 7명을 집사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편의상 붙인 말이지 원문에는 없다. 스테반이 분수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 정신없는 분이 스테반의 죽음에 대해서 '집사로 세웠더니 교방지게 설교를 하니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하길래 하는 말이다. 스테반도 빌립과 같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전도자였다). 또 다른 이유는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케뤼손)'는 말은 '설교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아래 영역본 참고). 디모데가 사역해야 하는 대상은 이미 믿은 성도들이다(2:4).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설교하라는 명이기 때문이다. '항상 힘쓰라'는 말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이다.

[NKJV]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nvince, rebuke, exhort, with all longsuffering and teaching.

[NIV]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rrect, rebuke and encourage--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3.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은 상대방의 형편을 고려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을 전하라는 뜻일까?

**아니다:**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나의 입장일 뿐 상대방의 입장은 최대한 고려해줘야 한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효과적인지조차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뜻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너무 살피다 보면 말씀을 전할 기회를 놓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용감한 태도는 득보다 실이 더 많아 보인다. 가뜰이나 교인들의 이런 태도에 거부감이 팽배한 시대에는 더욱 방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래 참아야 할 때도 있다.

4. 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까?

**사욕에 귀가 어두워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듣는 것이 바르게 들리지 않는다. 그런 때가 언제일까? 특별히 그럴 때가 있는가? 말씀보다는 물질이 더 좋은 때가 온다는 말인가? 특정한 어떤 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특별한 어떤 때가 아니라 그런 일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5. 전제는 희생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한 방식이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왜 전제에 비겼을까? 이어지는 표현대로 승리한 용사나 운동선수처럼 여겨도 좋을 텐데?

임박한 순교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여기서는 더 이상 그런 소망이나 희망을 표현하지 않는다. 스스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6. 우리말로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두 가지다. 스테파노스는 경기에서 이긴 자가 쓰는 것이고, 디아데마는 왕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은 어느 것일까?

**스테파노스:** 자신의 삶을 운동선수에 비겼으니 당연히 그렇다. 의로우신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대할 만큼 살았다. 이런 자신감을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것 아닐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이다.

7.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10)은 위의 어떤 사람과 대조적인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8):** 이런 사람은 영원한 복을 추구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찰에 눈이 멀어 영생을 잃고 영벌에 떨어진 사람이다. 푼돈 벌고 큰돈 잃는 사람이다. 아무리 많은 소규모 전투에서 이겨도 전쟁에 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8. 갈 사람은 가고, 보낼 사람은 보내면서 디모데는 왜 오라고 하는 걸까? 외로워서?

아마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특별히 당부해야 할 일이나 격려해야 할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일과 겹쳐서 길로도 가져오고 책도 가져오라는 것이다. 마가에게 특별히 당부할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9. 마가를 데려 오라고? 한 때 마가를 버린 적이 있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중도에 돌아가 버린 일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싸우게 만든 장본인이다. 누가 먼저 돌아왔을까? 어쨌거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는 함께 있었다(골 4:10, 몬 1:24). 후일에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다(벧전 5:13). 그래서 후일에 마가복음을 쓰게

된다. 아마 젊은 날의 실수에 대해서 마가가 깊이 반성하고 바울을 찾았을 것이다.

10.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단다.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주님께 맡겨버렸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든지, 아니면 내 눈으로 망하는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11. 변명이 뭐야?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차라리 변증이라고 하지 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헛갈리게 하나?

12. 로마 법정에서는 죄수 옆에 동료가 함께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그런데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던 모양이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바울로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던 모양이다. 어떻게 이겨냈을까?

**친구는 없었어도 주님께서 곁에 계셨음을 믿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무죄로 구해주셨단다. 그러면 1차 투옥 때의 일이다. 왜 갑자기 먼 옛날 얘기로 돌아갔지?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셈이다(16-18).

13. 왜 겨울 전에 오라는 걸까? 겨울옷이 필요해서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겨울이 오면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14. 누가만 함께 있다고 해놓고 여기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있네?

11절은 동역자를 의미하고 21절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로마 교회의 교우로 보인다.